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8. Vol. 315

기획특집_ 청정 양양 파수꾼, 환경미화원





펜트하우스 시즌3, 배우 박호산 불멸의 연기 투혼!!

‘알지? 양양 핫한 거♡’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자신을 지우는 일을 하고 있는 배우 박호산!

그래서 외롭다는 그가 부르는 양양song

양양양양양양 양양양양양양~~~~~ ♪ ♪ ♪ ♪ ♪

멜로디 중독성 이게 머선일이고?ㅋㅋㅋ

배우 박호산을 춤추게 하는 곳, 양양!!

feat. 양양에 양이 있나~~??

※ 본 영상은 양양군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청정 양양을 만드는 파수꾼, 환경미화원
- 8 마을가는 길_ 손양면 금강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후대에 남겨 질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
양양의 도문대작

의기양양

- 14 의정소식_ 의원 간담회 개최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조선 광해군 때 양양부(襄陽府)에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나타났었다.
- 18 YANGYANG NEWS
- 21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물치 해수욕장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6 공익광고
- 28 우리 동네 양양 안전지도



양양특산물(복숭아)

양양군 SNS 주소

- blog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f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ozhowSAVBPyje5rt_dvIDw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15호

| 발행일 2021년 8월 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청정 양양을 만드는 파수꾼, 환경미화원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말끔히 정돈되고 깨끗한 도시를 만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이른 새벽부터 깨끗한 아침을 준비한 사람들 덕분이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도로를 쓸고 지나는 환경미화원들의 분주한 손길에서 도시는 깨어나는 듯하다.

무더운 여름 피서객들로 넘치는 관광지 양양이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노고 덕분이다. 양양군에는 모두 40명의 환경미화원이 6개 읍면과 낙산도립공원, 환경자원센터에 각각 배치돼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일한다. 양양군 환경미화원들의 부지런한 일상을 만나본다.



양양 5일 장날은 최고의 이벤트, 또한 분리배출이 중요해요

양양군은 농·어·산촌을 비롯해 서핑 관광지와 최고의 관광 상품인 5일장이 열리는 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양양 장날은 가장 큰 이벤트로 인기가 높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일의 부담이 크다. 장날 다음날은 쓰레기 발생량이 5톤 차량 10대 분으로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인 데다, 한 달에 6회의 장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이다. 양양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이재현 반장은 오일장 다음날이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한다.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이 많지요. 시장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계도하면서 협조가 잘 돼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시는데, 외지에서 와서 하루 동안 머물러 가는 상인들은 대부분 그냥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장날이면 두 배 이상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도 분리배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수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재현 반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한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면 쓰레기를 수집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단축되죠. 그렇지 않으면 수거하는 현장에서 분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수거가 지체될 수 밖에 없어요.”

양양군 관광 1번지 현남면의 환경파수꾼

관광객과 서퍼들이 몰리는 현남면 인구·시변리 등 쓰레기 다량 발생 지역에서는 휴일 쓰레기 적지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휴일 쓰레기 수거 계획을 마련해 토요일 오전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주택 및 숙박업소, 상가 밀집지 등에서도 휴일에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깨끗한 관광지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핑 성지로 이름이 나면서 현남면은 평소 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일하지만 피서철이면 2명이 더 충원되는데도, 쓰레기양이 평소보다 60~70%가 늘어나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거를 하는 등 분주하다. 현남면 환경미화원 박재덕 반장은 관광지와 외곽지역을 이동하느라 만만치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양양읍은 인구 집중도가 높고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아서 모두 11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이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간대별로 팀이 운영되고, 매주 토요일 오전도 쓰레기 수거를 한다. 주말과 휴일동안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시가지지를 돌고 8시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어요.

관광지다 보니까 더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은 많고,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하루 종일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거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중요한 것이 분리배출이다. 현남면 19개리의 이장들이 하루에도 서너 차례 방송 등을 통해 계도하며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에서도 분리배출 등이 잘되지 않아서 박재덕 반장은 쓰레기 수거하랴, 분리배출에 대해 계도하랴 바쁘다.



“농촌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재활용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수거하곤 하죠.”

이처럼 피서철이 더욱 바빠지는 데다, 봄, 가을 단풍철까지 이어져서 양양군 환경미화원은 그 어느 지역보다 업무량이 많다. 게다가 겨울은 혹독한 추위에 또 힘들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으로 노조가 설립되면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인원 충원 등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깨끗한 양양 만들기, 함께 하실까요?

올여름 양양군에서는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해 하조대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정암해수욕장, 물치해수욕장 등 모두 21개소가 7월 9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었다. 주택 및 상가 밀집지 등에서 생활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 배출 자제를 안내하고, 배출 시간(일몰 후부터 ~ 아침 6시까지)과 배출 지정장소를 안내하며 낮에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내권과 읍·면별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공무직 노조 최동규 양양지부장의 바람도 같다.

“2015년에 공무원 노조 양양지부가 설립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인원이 더 보강되었으면 해요.

현재 직원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산재나 병가 등은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업무 과중이 크니까 쉽지 않죠.”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깨끗한 양양을 만들어가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도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구 총 6개소(읍·면 각 1개소)에 이동형 영상감시 장치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 현재 영상감시 장치는 2016년 고정식 카메라 5대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정식 카메라 39대, 이동식 카메라 13대 총 52대의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상감시 장치 설치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양양읍 관아길 4-26외 5개소에 이동식 카메라 6대를 설치한 결과, 이동식 카메라 설치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여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감시영상을 통한 청결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분리 배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양양의 환경파수꾼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1년에 소비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8~10만원이라고 한다.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은 약 930g 정도이다.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데,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20%가 병류, 종이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이라고 한다. 분리배출만 잘해도 자원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쓰레기 소각에 사용되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총 5가지로 신문·박스 등의 종이류와, 병, 캔, 플라스틱, 고철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배출시간은 쓰레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몰 후 아침 6시까지 배출,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고, 일회용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양양읍 서문리 등 총 21개소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배출장소 쉼스를 추가 설치하고,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방치

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손양면 가평리 등 2개 마을에 공동 집하장 설치, 영농폐비닐(110원/kg당)·폐농약용기류(용기류 1,600원/kg당)에 대해서는 수집보상금도 지급하는 등 청정 양양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양양군에서는 피서철 깨끗한 환경 만들기 대책과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SNS와 현수막을 통한 홍보 및 계도활동과 해변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피서지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피서지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양양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은 따로 있지 않다.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와 지역주민 누구나 분리배출을 실천하며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 것은 지역민으로서의 역할이자 의무일 것이다.

(글·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손양면 금강리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내공을 지닌 마을
초초고령화 마을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공동경작을 통해 꿈꾸는 공동체 회복

손양면 소재의 여러 마을 중에 금강리가 어떤 마을인지 제대로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지척에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나 수산항과 같은 양양의 대표 명소가 자리해 있어도 이 작고 조용한 마을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은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고, 워낙 작은 마을이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금강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맹모삼천지교를 본받은 작은 마을

금강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흠에 기대어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그 외의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주변 마을들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와중에도 금강리는 늘 같은 풍경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에는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마을 사업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함영준 이장(68세)은 말한다.

“지금 우리 마을 주민수가 귀농·귀촌민을 포함해 26가구 46명인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주민 가구 수가 20여 가구를 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없었죠. 다른 마을이 새 마을운동을 할 때도 우리 마을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격차가 벌어진 것이죠.”

마을 자체는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지만, 금강리가 다른 마을에 뒤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다른 교육 열이다. 함영준 이장은 금강리가 양양지역에서 대학생이 제일 많았던 마을이었다며, 공부 잘하는 마을로 소문이 났다고 자부한다. 그는 농사지을 땅을 한 평 더 마련하는 것보다 아이들 글자 하나 더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던 부모님 세대를 선각자라고 칭한다.

이영성 노인회장(81세) 역시 어려운 살림에도 아낌없이 딸들의 교육 뒷바라지를 했다. 여성들은 중학교만 나오면 공



장으로 일하러 가는 일이 다반사인 시절이었다. 시집가면 그만인 딸을 왜 가르치느냐고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금강리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장리쌀을 빌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다. 작고 영세한 마을에서 태어났어도 아이들에게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故事)처럼 부모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함영준 이장은 본가에서 동네 아이들이 열댓 명씩 모여 함께 공부했던 일을 떠올린다. 지금은 모두 장성하여 사업가, 교육자, 의사, 대기업 직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마을의 자량이 되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자식들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준 부모 세대,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 그 자손들이야말로 금강리의 숨겨진 보배라 하겠다.

2021년, 마을 사업의 첫 삽을 뜨다

젊은 인재들 대부분을 외지로 떠나보낸 금강리는 초초고령화 마을이 되었다. 60대 주민들은 겨우 손에 꼽을 정도이고, 8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게다가 귀농·귀촌을 온 이주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대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민 간의 왕래나 교류도 이전보다 뜸해졌다.

올해 처음 이장직을 맡은 함영준 이장은 주민 간의 융화와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잊혀져 가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전했다.

금강리에서 진행하는 첫 마을사업이기에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함영준 이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향후 마을사업을 대비한 경험치를 쌓고자 한다.



“마을 사업을 통해 동네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소일거리를 통해 마을 일에 참여했다는 자긍심도 심어 드리고 싶었죠.

조용하기만 한 작은 마을이 한 번 태동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노인회장님과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금강리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경작포 운영과 마을 꽃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개소 총 5,000㎡ 규모로 운영되는 공동경작포의 첫 성과물은 옥수수이다. 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어 수확하는 일에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함영준 이장은 밭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소정의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해 노트에 주민들의 작업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 금강리의 꿈

올해 금강리는 마을 환경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화분 300개를 구매해서 마을 경로당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나눠주어 1가구 1화단 가꾸기를 실현했다. 게다가 개화기가 다른 꽃들을 선별해 1년 내내 꽃이 피는 마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금강리에서는 꽃밭이 없는 집을 찾기 어렵다. 더불어 그간 골칫거리였던 쓰레기 문제도 주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말끔하게 해결했다.



왔다. 옥수수 판매 수익금으로 그간 수고하고 애쓴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마을공동기금의 기반을 마련할 생각이다. 옥수수를 거둔 자리에는 들깨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구슬땀이 떨어진 자리에 들깨가 알알이 잉글어 가는 풍경이 눈앞에 선해진다.

“금강리가 쓰레기장인 줄 알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해가 진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해뜨기 전에 쓰레기를 치우자고 당부했죠.

분리배출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덕분에 낮 동안에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던 주민들도 깨끗해진 동네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공동경작이나 환경 개선의 당위성이 처음부터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안 하던 일을 왜 하나며 농담 섞인 푸념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마을이 외형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모해가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함영준 이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이영성 노인회장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주민들 덕분에 마을의 첫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장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영성 노인회장은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협동하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소리를 듣는 금강리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여름이 깊어지는 만큼 짙은 녹음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뜨거운 태양과 무더위에 맞서기라도 하려는 듯 숲은 더욱 울울창창하다. 금강리는 마을 전체가 커다란 숲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일까? 이 마을에는 바깥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 150년 수령의 보호수도 여름 피약벌 아래에서 흐트러짐 없이 꽃꽂하다. 고즈넉한 마을의 정취가



금강리 사람들의 기본 정서와도 닿아있는 것 같다. 어려운 세월을 묵묵하게 인내해 온 사람들이 갖는 특유의 초연함 같은 것 말이다. 그렇게 다져진 내공이 있으니, 올해 첫 마을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금강리가 한 여름에 더욱 무성해지는 푸른 숲처럼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는 마을로 기억되길 바란다.

〈글·사진 : 편집부〉

후대에 남겨 질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 양양의 도문대작

조선팔도(朝鮮八道)에서 한 평생 진미(珍味)와 일미(一味)를 만(萬) 백성들로부터 공물(供物)로 먹는 하늘 아래 임금을 제외하고, 조선시대 최고의 미식가는 심노송(沈魯崇)이라는 사대부이다.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천재 여류시인이었던 허난설헌의 동생으로 조선의 자유주의자로 불리던 허균(許筠)이 조선의 '탐식적 평론가'라면, 심노송은 '미식적 평론가'였다. 두 사람은 음식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달랐으며, 음식이 주는 본질적 생각도 달랐다. 다만, 사대부의 신분이면서도 음식을 즐기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맛집과 음식을 찾아다닐 정도로 극성인 것만은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이러한 두 사람에게 인생 공통점이 있었으니, 입 속에 넣으면 깃털은 가벼움으로 세상 살맛나게 해주던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는 달리, 조선 정권(政權)으로부터 대역죄인으로, 의리배치(義理背馳)라는 죄인으로 역사에 기록된 탐식가(貪食家)이자 미식가(美食家)라는 점이다.





허균과 양양의 신해진미

허균은 당시 조선팔도에서 표범의 땃줄요리를 가장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표태(豹胎)음식을 먹으러 양양까지 왔었던 탐식가였다. 그 해괴한 음식을 산해진미(山海珍味)라고 하여 진미(珍味)중의 진미(珍味)로 맛 본 후에, 그가 조선 팔도의 맛있는 음식으로 기록한 ‘도문대작(屠門大嚼)’이라고 하는 음식 책에 “다른 지역의 것은 불결하여 먹을 수가 없었는데, 양양 사람이 만든 표태요리는 그 맛이 아주 좋다”라고 기록하였다.

양양에서 조선의 임금에게 진미(珍味)로 진상하였던 곰의 발바닥을 뜻하는 웅장(熊掌)과 표태(豹胎)를 뜻하는 표범의 땃줄을 먹었던 허균이었지만 그의 입맛과 다르게, 그는 조선으로부터 체제와 사상을 부정하고 개혁을 꿈꾸는 이단아(異端兒)로 뼈 속까지 미움과 증오를 받는다. 결국 광해군 때 반역을 도모하려했다는 밀고로 대역죄인으로 몰려 저자거리에서 재판 한번 없이 양팔과 양 다리를 동아줄에 묶여 황소가 사지(四肢)를 찢어서 죽이는 능지처참을 당하게 된다. 그의 삶을 예견이라도 했을까. 그의 음식 책이었던 ‘도문대작(屠門大嚼)’이란 제목 또한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푸줏간을 보고도 씹는 시늉을 한다’라는 뜻인데, 그의 죽음 또한 도살장과도 같은 것이며, 그를 죽였던 황소 또한 그가 살아생전에 즐겨 먹었던 고기이기도 하였다.

자유분방한 삶과 파격적인 학문으로 자기 꿈의 실현을 바라던 사상가로 조선의 개혁을 탐식(貪食)으로 해소하였던 허균이었다.

심노승의 입맛과도 같은 양양음식

허균과 달리 조선시대 괴짜 문인 심노승(沈魯崇)이라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라면 봉창(封窓)이라도 두들길 정

도였다. 그는 조선의 정파(政派) 싸움에 휘말리고 패하게 되자, 의리를 배반하였다고 하여 의리배치(義理背馳)라는 기묘한 이름의 죄목으로 부산 기장으로 유배를 가게 된 조선 최고의 미식가였다.

유배지에서도 그의 미식(美食)에 대한 욕구는 대단하였다. 유배지의 음식은 비위가 상해서 못먹겠더라며, 본가(本家)에서 음식 잘하는 여자 노비를 데려오거나, 자신이 공부를 가르치던 아이에게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한양식 요리법을 가르쳐 전속 요리사로 삼았을 정도였다. 더욱이 새로운 메뉴개발도 하였는데 꿩만두, 소고기구이, 한양식 김치뿐만 아니라 지금의 ‘삼겹살’ 처럼 ‘얇게 자른 돼지고기’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유배를 온 죄인의 거처와 음식을 챙겨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책임자였던 ‘보수주인(保授主人)’과 음식 작당을 하다가, 부산 현감에 발각되어 문초(問招)를 당하게 되자 “음식을 먹는 것만큼 인생의 즐거움이 또 어디 있느냐”며, 유배 생활 6년 동안 총 6편의 효전상고(孝田散稿)라고하는 ‘조선판 음식평론서’를 남긴 조선의 진정한 미식가였다.

사대부(士大夫)가 음식을 탐하는 것을 죄악시 하던 조선의 유교사상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탄압까지 받았던 심노승(沈魯崇)의 책에는 절이고, 삭히고, 무치고, 굽고, 푹고아진 그의 입맛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음식 또한 이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식(貪食)과 미식(美食)으로 다시 찾아 올 만 한 지역음식으로 후대에 기록되길 바래본다.



의원 간담회 개최

여름철 해수욕장 및 폭염 관련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검토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6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군 관광과의 여름철 해수욕장 관련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2021년도 여름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을 예산 성립전 사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전예약제 및 안심콜 시행에 따른 방역장비와 물품을 구입하여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최근 동해안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코로나확산

우려가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7월 5일 재난안전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염 대책비 지원에 따른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여름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4개를 설치하고, 무더위쉼터에 생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성립전 사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7월 12일, 의정동우회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8대 양양군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전직 의원 20여명을 초청하여 2021년 의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양양군 주요 역점사업인 육아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기타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의정활동 경험으로 축적된 의정동우회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논의했다.

여름 해수욕장 현장점검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현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



의원들은 지난 7월 19일 낙산해수욕장과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 및 예방활동 점검을 통해 해수욕장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점검



하는 한편,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과 속초 해양경찰서 등 인근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 광해군 때 양양부(襄陽府)에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나타났었다

《광해군일기》 광해 1년(1609) 9월 25일 강원 감사 이형욱의
도내 보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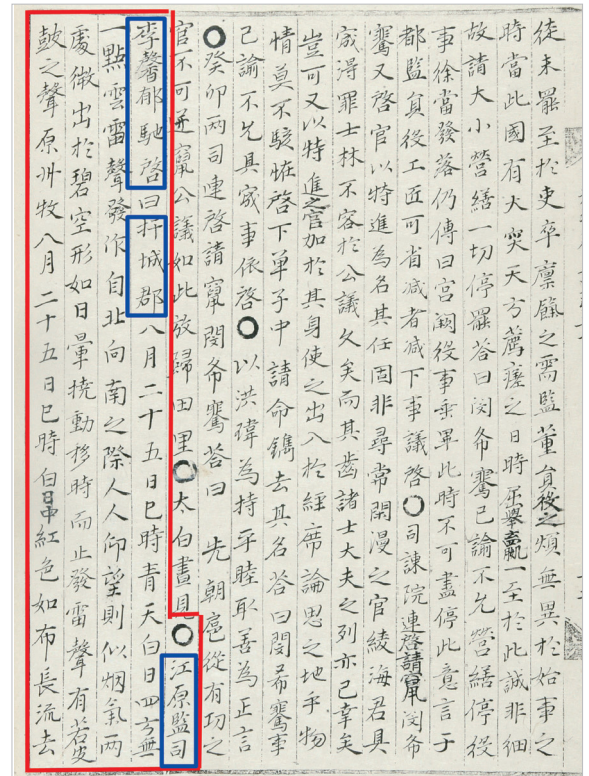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광해1년(1609) 9.25 (1)

○ 양양부(襄陽府)에서는 8월 25일 미시(未時)에 품관(品官) 전문위(全文緯)의 집 뜰 가운데 처마 아래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땅에 내릴 듯하더니 곧 1장(丈) 정도 굽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습니다.

크기는 한 아름 정도이고 길이는 배 반 필(匹) 정도였는데,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습니다. 쳐다보니, 마치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도는데, 모습은 깃발을 만 것 같습니다. 반쯤 공중에 올라가더니 온통 적색이 되었는데, 위의 머리는 뾰족하고 아래 뿌리 쪽은 자른 듯 하였습니다. 곧바로 하늘 한 가운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하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어 하늘에 붙은 것처럼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칠 듯 끼어들면서 마치 기운을 토해내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1장정도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한 조각은 본래의 곳에 떠 있었는데 형체는 마치 베로 만든 방석과 같았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몇 번 나더니, 끝내는 돌이 구르고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그 속에서 나다가 한참 만에 그쳤습니다. 이때 하늘은 청명하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습니다.

○ 간성군(杆城郡)에서 8월 25일 사시(巳時) 푸른 하늘에 짹짹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우리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습니다.



강원감사 이형욱이 임금에게 급히 서면으로 상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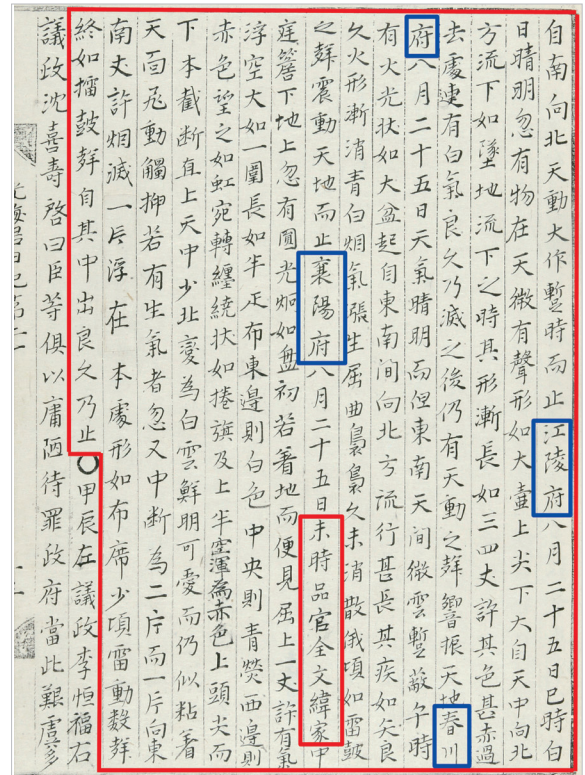
襄陽府, 八月二十五日未時, 品官 全文緯家中庭簷下地上, 忽有圓光炯如盤, 初若着地, 而便見屈上一丈許, 有氣浮空. 大如一圍, 長如半匹布, 東邊則白色, 中央則青瑩, 西邊則赤色. 望之如虹, 宛轉纏繞, 狀如捲旗. 及上半空, 渾爲赤色, 上頭尖而下本截斷. 直上天中少北, 變爲白雲, 鮮明可愛. 而仍似粘着天面飛動, 觸揮若有生氣者, 忽又中斷爲二片, 而一片向東南, 丈許煙滅, 一片浮在本處, 形如布席. 少頃雷動數聲, 終如擗鼓聲, 自其中出, 良久乃止. 是時, 天色清明, 四際無點翳.

○ 원주목(原州牧)에서는 8월 25일 사시(巳時) 대낮에 붉은색으로 베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천둥소리가 크게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습니다.

○ 강릉부(江陵府)에서는 8월 25일 사시(巳時)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 가운데서부터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에 추락할 듯 하였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형상이 점차 커져 3, 4장(丈) 정도였는데, 그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天地)를 진동했습니다.

○ 춘천부(春川府)에서는 8월 25일 날씨가 청명하고 단지 동남쪽 하늘 사이에 조그만 구름이 잠시 나왔는데, 오시(午時)에 화광(火光)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큰 동이와 같았는데, 동남쪽에서 생겨나 북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매우 크고 빠르기는 화살 같았는데 한참 뒤에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멸되고, 청백(靑白)의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습니 다. 얼마 있다가 우레와 북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다가 멈추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1년(1609) 9.25 (2)



8월25일 미시[未時:오후 1시30분~2시30분]
양양부 품관 전문위 집 기록

杆城郡, 八月二十五日巳時, 靑天白日, 四方無一點雲, 雷聲發作, 自北向南之際, 人人仰望, 則似煙氣兩處微出於碧空. 形如日暈, 撓動移時而止, 發雷聲有若皮鼓之聲. 原州牧, 八月二十五日巳時, 白日中, 紅色如布長流去, 自南向北, 天動大作, 暫時而止. 江陵府, 八月二十五日巳時, 白日晴明, 忽有物在天, 微有聲, 形如大壺, 上尖下大, 自天中向北方, 流下如墜地. 流下之時, 其形漸長如三四丈許, 其色甚赤, 過去處, 連有白氣, 良久乃滅之後, 仍有天動之聲, 響振天地. 春川府, 八月二十五日, 天氣晴明, 而但東南天間微雲暫發, 午時有火光, 狀有大盆, 起自東南間, 向北方流行甚長. 其疾如矢, 良久火形漸消, 靑白煙氣漲生, 屈曲裊裊, 久未消散. 俄頃如雷鼓之聲, 震動天地而止.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모티브 중심은 양양부였다.

“별에서 온 그대”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SBS가 21부작 미니시리즈로 제작한 수목 드라마로, 지금으로부터 412년 전인 1609년 9월 22일 강원도 여러 고을에 알 수 없는 비행물체들이 목격되었다고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된 것이 모티브가 되었다. 그 당시 襄陽府에 미시(未時:오후1시반~2시반) 품관(品官) 전문위(全文緯) 집 뜰 앞에 나타나 이 땅에 정착한 그 외계인이 400년 후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다면 이라는 황당하지만 기발한 가정에서 시작한다. 본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대장금”의 뒤를 잇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당시 북경에서 대규모 세트 전시장을 오픈할 정도였으며, 이 드라마는 방영 판권이, 아시아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아르헨티나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영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양양군은 7월 21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3건의 행정소송과 2건의 행정심판에서 절차상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내용상의 객관성을 모두 검증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환경부는 재보완 요청을 했다"며 "전반적으로 보완 사항이 부적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동물상과 식물상, 지형지질, 소음진동, 시설안전대책 등 16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재보완 요구 취소와 더불어 현명한 판단으로 환경부에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양양군,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위한 양양 8경 재정비 추진

양양군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양양을 위한 '양양 8경' 재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양양 8경(1경 남대천, 2경 대청봉, 3경 한계령, 4경 오색주전골, 5경 하조대, 6경 죽도정 7경 남애항 8경 낙산사 의상대)'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 사업으로 2004년 선정된 이후 양양군 관광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여 왔으나, 최근 서핑 활성화 등 관광선호 인식변화로 관광 트렌드에 맞는 명소를 발굴하여 재정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 10경 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양 8경 적합성 검토, 재지정 방법 및 분석절차에 대한 논의와 관내 숨은 명소 자체선정, 추천 등을 통해 발굴 된 명소 중 내부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11월중 최종 10경을 선정할 예정이다.



양양군, '농경문화전시관' 추진 순조롭게 '착착'

양양군은 2023년 개관 예정인 '양양농경문화전시관'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농경문화전시관은 농촌인구 감소 및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고 훼손되어 가는 농업유형 자산을 수집·전시하여 농업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건물 1, 2층(1,148㎡) 공간에 마련되는 농경문화전시관은 1층에는 농경 체험실, 첨단 농업관, 영상실, 전시 준비실로 활용하고, 2층은 농경 체험실, 첨단 농업관(식물공장) 등으로 조성된다.

또한 옥상 공간은 남대천 녹색생태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군은 당초 2024년 개관 예정으로 지난 3월부터 전시물품 수집에 들어갔으나, 개관 시기를 1년 앞당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양군,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온라인 업무협약

양양군은 지난 달 13일 군수실에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온라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높은 중개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서비스다.

이번 협약식은 강원도 9개 시·군과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이 함께 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시, 정선군, 강릉시 등 6개 시·군에서 배달앱을 운영 중이며, 지난 5월부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이 새롭게 참여해 모두 9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지난 달 5일 기준 현재 6개 시군에서 2300여개 가맹점이 신청하고, 3만4000여명의 소비자가 배달앱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점차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양양송이축제, '2021 문화관광축제 심층 컨설팅 대상' 선정

양양문화재단은 양양군의 대표축제인 '양양송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1 문화관광축제 심층 컨설팅 대상'에 선정됐다.

문화관광축제 심층 컨설팅 사업은 축제의 심층 분석·진단으로 문제점 도출, 전략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방향과 전략 등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2021 문화관광축제 총 53개 축제(현행 문화관광축제 34개, 종로 문화관광축제 19개)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양양송이축제'를 비롯한 5개 축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양양송이축제는 특산물 축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송이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받게 됐다.



양양군, '여름철 무더위 잠시 피해가세요'...그늘막 4개소 설치

양양군이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저감 시설인 그늘막 4개를 강현면 낙산과 물치에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기후환경 분석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늘막으로, 주변 온도와 바람의 세기를 분석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개폐되어 기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태양광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스마트 그늘막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대기하는 주민들에게 무더위와 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양군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며, 복지회관,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자주 활용하는 공공장소 21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야외 무더위쉼터 18개소를 운영한다.

양양군, 계약심사 통해 상반기 4억4천만 원 예산절감 효과

양양군이 계약심사제를 운영으로 올해 상반기에 4억 4,266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는 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살펴보는 제도다.

군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상반기에 공사 18건, 용역 10건, 물품구매 10건 등 총 38건(사업비 147억 282만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해 4억 4,266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 또한 향상시켰다.

군은 절감된 예산을 시급한 사업에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심사와 계약심사제 운영을 활성화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양문화재단, 출범 기념공연 지난달 16일 선보여

양양문화재단 출범 기념공연이 7월 16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문화재단 출범식을 겸하는 이번 공연은 식전 공연인 강원도립무용단의 태평무를 시작으로 출범 기념식에 이어 1부 경기팝스앙상블, 2부 강원도립무용단의 축하무대로 꾸며졌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키워드는 이제 양양입니다!'라는 주제로 양양문화재단이 양양군의 문화예술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화재단은 참석자들 사전 발열체크와 좌석 띄우기 등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짜임새 있는 공연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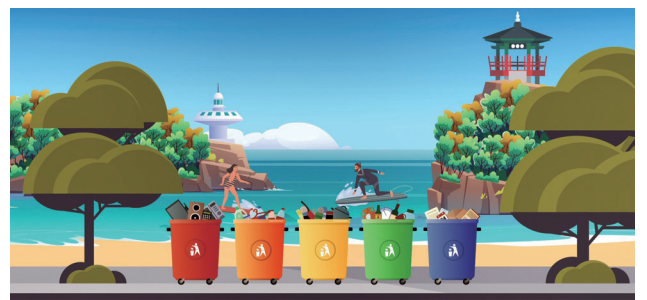
양양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영상 집중 홍보

양양군은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양양군 공식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한 집중홍보 중이다.

군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영상에 담아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군 쓰레기 배출요령은 총 5가지로 신문·박스 등의 종이류와, 병, 캔, 플라스틱, 고철로 구분된다.

쓰레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몰 후 아침 6시까지 배출이 가능하며,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배출하고 일회용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물치 해수욕장



1968년

하늘에 흰 구름
두둥실 흐르는 날에

세상일 잠시 접고
바다로 가자.

머릿속 복잡한 생각은
딱 내려놓고서

가슴 하나만 챙겨갖고
가까운 바다로 가자.

파도 소리에
귀는 말끔히 씻어지고

하늘 바다에 폭 잠겨
영혼은 떡을 감으리.

〈바다로 가자 / 정연복〉



2021년

이달의 책이야기



빛이 사라지기 전에

박혜미 지음 | 오후의소묘 | 2021. 7월



빛이 사라지기 전에
빛의 사이사이를 통과한다.
한 줌의 빛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풍경과 더불어 세밀하게 그려내는 박혜미 작가가 한여름의 파랑을 담았다.
노란 보드를 안고 생명줄을 발목에 건 채 윤슬의 바다로 나아가는 서퍼,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일어서고 미끄러지며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다 어느 순간 파도에 올라타 한 줌 물결을 쥐고 버리며 빛 사이사이를 통과한다. 가슴 깊이 들어차는 자유로움과 환희, 그 고요한 역동이 펼쳐지는 찬란한 바다 위에서 우리도 서퍼가 되고 파랑이 되고 빛이 된다.

가로로 긴 판형의 책을 펼치는 순간, 활짝 열린 두 팔 사이로 빛이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뛰어든다. 그다음은 우리가 빠져들 차례. 겹겹이, 층층이 다르게 채색된 물감의 파랑이 깊이를 만들어내고 화면에서 점점 커져가는 하얀 포말은 감정을 고조시킨다. 파도타기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일까.

책 속 한 구절

■ 한 줌 물결을 쥐는 당신의 용기를 빗대어 우리의 이야기로 그리고 싶었다. 햇빛을 고이 접어 집으로 돌아와, 반짝거리던 당신을 조금이라도 놓칠까 봐 서둘러 붓을 들었다. 그렇게 그날의 바다를 종이에 새겨 넣었다. _에필로그 중에서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식물에게 배우다

최미애 지음 | 바른북스 | 2021. 7월



강원도 양양 출생의 작가, 식물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배우다! 식물의 몸짓언어로 쓴 누구나 읽으면 행복해지는 책! 창의성 발달을 위한 수필 같은 교육도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실천적 도서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식물과 벗하면 삶의 철학이 바뀝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식물에게 배우고 또 배웁니다. 식물화분 하나로 세상을 바꿉니다. 식물에게 자유를 배웁니다. 식물에게서 비우는 법을 배웁니다.”

여행의 말들

이다혜 지음 | 유유 | 2021. 7월



베테랑 기자, 탁월한 작가, 용감한 팟캐스터... 그리고 무엇보다 오롯한 ‘여행자’ 올라운더 이다혜가 찾아 낸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서의 여행

『출근길의 주문』, 『내일을 위한 내 일』, 『코넬 도일』 등으로 독자를 활발히 만나 온 에세이스트 이다혜가 여행에 대한 100개의 문장을 모았다. 책에서 길어 올린 단단한 문장과 그에 따른 단상을 통해 작가는 일상을 다시 발명하는 방법으로서의 여행을 제안한다. 또한 코로나19 시대, 지금 우리의 여행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경험을 선사하며 떠나든 떠나지 않든 챗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의 바깥을 상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s://yangyang.scinema.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소노인터내셔널 (솔비치 양양)	00명	객실청소원(룸메이드) 총클락, 팬츄리	08:30~17:30 (파트타임가능)	월183만원이상 (협의)
가족노인 주간보호센터	1명	요양보호사	09:00~18:00 (주5일)	월182만원이상
(주)남영엔지니어링 (낙산 현장)	2명	토목시공기술자 (건축흙막이공사)	07:00~17:00 (주5일)	연5,300만원이상 (협의)
국도안전관리(주)	2명	공사현장 경비원 (경비신입교육이수자)	격일근무	월194만원이상
낙산요양원	2명	간호사,간호조무사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한솔학원	1명	영어강사	14:30~20:00 (주5일)	월180만원이상 (협의)
설악환경산업(주)	1명	25톤덤프기사	08:00~17:00 (토요격주)	연3,000만원
e편한세상아파트	1명	미화원	09:00~16:00 (토요격주)	월142만원이상
산과바다	1명	양식원	05:30~13:30 (주6일)	연3,000만원
정인회식당	3명	홀서빙, 주방보조	09:00~21:00	1일 12만원
(주)청수환경 엔지니어링	0명	수질환경전기토목 건축기계화공자격을 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2,800만원이상
마할로호텔	2명	객실청소원(룸메이드)	09:00~18:00 (시간협의)	월250만원 (협의)
마할로카페	2명	바리스타 (초보자 가능)	09:00~18:00 (협의)	시급8,720원이상 (협의)
(주)강릉치과두부	1명	두부생산직	08:00~17:00 (주5일)	월190만원
양양재활 주간보호센터	1명	조리원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 운영일자 : 7월 20일(화)~8월 29일(일)
 - 운영대상 : 관람객(가족단위 관람객 5명 내외)
 - * 가급적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 받아 체험 장소만 제공하는 비대면 체험으로 운영
 - 운영 프로그램
 - 조각난 유물복원 체험
 - 열쇠고리 만들기
 - 유물 스크래치 체험
 - 파우치 컬러링
 - 한 여름날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유물 이야기 등
 - 체험료 : 무료~13,000원
 - 문의사항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033-670-2547/2442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22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1. 7. 19.(월) ~ 2021. 8. 31.(화)
- 사업규모 : 총 5억
- 제안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누구나
- 대상사업 : 1건 5천만원 이내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단년도 추진 가능한 사업
- 제안방법 : 군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부서 우편접수 등
- 문의사항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033-670-2212)

2022년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진행

- 조사기간 : 2021. 7. 19.(월) ~ 2021. 8. 20.(금)
- 조사방법 : 군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속 (군민소통→설문조사란)
- 참여자 : 양양군민
- 조사항목 : 20개(재정운영방향, 분야별 투자분야 등)
- 문의사항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033-670-2212)

「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지원대상 사업장 모집 공고

1. 지원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외 소규모 시설
 - 300㎡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 등
 -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그 밖에 법령 상 대상시설외 시설
 -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
2. 지원범위 : 개소 당 300만원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서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사업장
 - 임차 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승낙을 득한 사업장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1. 7. 15.(목) ~ 8. 20.(금)
 - 접수처 : 양양군 복지와 장애인복지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장)
 - 임대인 승낙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복지와 장애인복지팀(☎033-670-2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양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1세대당 차량 1대 등록가능
 - 양양군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로서 법인·단체별 1대 등록가능
- 대상차종 :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 감면횟수 :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 감면
- 문의사항 : 양양군청 전라교통과(☎033-670-2170)

2021 양양군 UCC 공모전



서핑 It'知 맛있는 거 It'知



대상 상금 500만원

공모기간	2021.8. 2.(월) ~ 10. 29.(금) 23:59분까지
공모주제	서핑 It'知! 맛있는 거 It'知! (양양음식, 카페 등 먹거리)
참가자격	전 국민 누구나(자격제한없음/1인(팀)2편이내, 중복 시상 불가)
공모분야	동영상(순수창작물)
출품규격	30초~1분30초이내
접수방법	양양군 공식블로그 참조



정보꾸러미

‘청년’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청년전세자금보증

□ 보증대상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1~4714)



강원 일자리박람회



강원도 최대 일자리 통합 플랫폼

<http://job.gwd.go.kr>

8.23 월 - 9.17 금

- 8. 23(월) 춘천 “강원LIVE 스튜디오” 개막식 및 취업오디션 **LIVE**
- 9. 02(목) 원주 국민체육센터
- 9. 07(화)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
- 9. 16(목) 강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9. 17(금) 홍천 홍천읍사무소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http://job.gwd.go.kr>) 공지사항 참조

참가문의

(재)강원도일자리재단 | 033-256-9602
강원일자리박람회 운영사무국 | 033-766-076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주민과 출입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1



차단 울타리 출입 후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주세요**

2



출입 후에는
반드시
소독해주세요

3



훼손(뺨어지거나 구멍난 곳 등)된
울타리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ASF 차단 울타리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여 아프리카열병(ASF)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중요 시설

차단 울타리 긴급대응 안내전화

경기·강원권		기타 지역
한강유역환경청 (파주 ~ 가평)	031)790-2841	정부민원콜 110 또는 해당지역번호 + 120
원주지방환경청 (춘천 ~ 고성)	033)760-6062	

※장마철 24시간 신고전화 041.950.5975







강원도민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하는

경력단절예방·극복 우수사례 공모전

접수기간: 2021. 7. 12.(월) ~ 8. 20.(금)

공모전 안내

참가대상

경력단절예방에 관심 있는 강원도민 누구나
(경력단절 여성·가족·친구, 사업주 등)

주제

- 경력단절 예방·극복 사례
- 일·가정 양립 성공 사례

* 예) 육아휴직 후 성공 복귀 사례
여성 고용 우수 사례(기업)
일·가정 모두 지키는 엄마를 응원하는 편지 등

시상규모

부문	금액(강원상품권)	훈격
글	- 최우수(1명): 50만 원 - 우 수(3명): 각 30만 원 - 장 려(5명): 각 10만 원	강원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상
사진	- 최우수(1명): 20만 원 - 우 수(3명): 각 10만 원 - 장 려(5명): 각 5만 원	

* 시상규모는 변동 가능하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접수방법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jh@gwjf.or.kr

문의

강원도일자리재단 여성장애인사업부
☎ 033-256-9587



공고문 바로가기

공모부문

부문	내용
글	글의 종류 무관(수기, 편지, 시 등) 분량 제한 없음
사진	100자 내외의 설명과 제출 * 핸드폰 사진 가능, 저해상도 사진 지양

* 부문별 1건(전체 2건) 응모 가능, 단 중복수상은 불가



여성가족부



강원도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반드시 분리하여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페트병(음료·생수)



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기



투명 페트
기타 플라스틱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골판지 박스

택배 송장 스티커,
테이프 제거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해주세요
-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해주세요

신문·책지류



스프링은 떼어서
따로 배출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후
배출해주세요

종이팩



-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 주세요
(수거함이 없는 경우 묶어 종이류로 배출)

플라스틱류

꼭 이물질·물기 제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음료 용기>은박지 제거
 - 물티슈>캡 분리

기타



부착물을 제거한후 분리배출
(부착물>종량제봉투, 본체>재활용품)

폐가전제품(대형/소형) 분리배출 방법(무상수거)

대상품목

대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소형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믹서)기,
휴대폰(배터리 포함), 비데 등

배출방법

사전 예약방법 (배출자 개별신청)

1. 콜센터 전화: 1599-0903 [평일 08:00~18:00] 2. 인터넷홈페이지: www.15990903.or.kr

세트 품목: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세트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 가능

대형 폐기물

전기장판 / 욕매트 / 조명기기 / 악기 / 전기안마의자 / 가구(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후 배출(해당 읍면사무소)

*별도 처리수수료 부담

LEVEL UP
우리 동네 양양
안전지도



저고 높고
커뮤니티 매포



QR 코드를 찍어 보세요.
양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핑한 지도를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아아

● 불법주정차가 즐비한 도로



함께가서 멀리가는 마을살림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처_ 양양군, 양양군 도시재생
 발행일_ 2021년 6월
 기획·디자인_ 새롬커뮤니티

yyursc saebom.community

※ 본 지도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level up! 남문리 마을계획단'의 사업비로 제작했습니다.



天斗車

 보도블록파손 - 보행문제

방치된 쓰레기

 청소년 비행 위험지역

기타

의사소통 - 1

1000

— 10 —

- 노후화된 건물

저명한 인사들

복합주정차가 준비한 도로

▶ **엘로우카펫**

아아아

함께가서 멀리가는 마을살림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처_ 양양군, 양양군 도시재생
 발행일_ 2021년 6월
 기획·디자인_ 새롬커뮤니티

yyursc saebom.community

※ 본 지도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level up! 남문리 마을계획단'의 사업비로 제작했습니다.